

급경사지·소하천등 854곳 재난점검

보성군, 위험요인 즉시 정비등 예방중심관리 만전 인명피해 우려지역등 50곳 현장점검 전담계 운영

전남 보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재난취약사지 사전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재난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9곳, 저수지 101곳, 소하천 391곳, 산사태 취약지역 201곳, 배수펌프장 12곳 등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합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정비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등 50여곳에는 2인1조 현장점검 전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와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우선 대피대상자를 주민 대피지원단과 1대1로 매칭해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수방자재와 응급 복구 장비, 구호물자 등 재난 대응 자원을 확보했으며, 기상특보 예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성=황승순 기자 whng04@siminibo.co.kr

'집들이 플랫폼'으로 빈집 쉽게 찾는다

강진군, 정보검색·정책안내 온라인 원스톱 제공 집 내부·주변 영상 게시... 예비귀촌인 편의 UP

전남 강진군이 빈집 정보 검색부터 인구정책 안내까지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강진군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진행되는 2026 제2차 강진포에(愛)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빈집 정보를 찾는 예비 귀촌인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강진포에(愛)는 강진군이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인기 주거 지원 사업이다. 이번 모집부터 군민과 예비 귀촌인은 플랫폼 한 곳 안에서 빈집 정보를 확인하고 인구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 집들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빈집을 지도에서 한눈에', '강진군의 빈집 위치와 주변 편의시설 정보' 지도 위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둘러보기 어려운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24시간 AI 챗봇 상담은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돈 1만원이면 강진포에를 비롯한 주거·임대·육아 등 인구정책 정보를 안내해 준다.

평일 근무시간에 전화로 문의하기 어려운 주민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 '영상으로 빈집 둘러보기', 빈집 내부와 주변 환경을 촬영한 영상이 게시돼 있어 희망하는 집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은 행정 업무 효율도 높인다. 그동안 수기로 관리되던 빈집 실態조사 자료가 디지털로 표준화돼 담당자가 빈집 현황과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폐기장 등 빈집 관련 서류 발급이나 주소·과목 변경처럼 서류 절차가 어려운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돼 직원들이 단순 작업 대신 정책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강진=정찬호 기자 jcs0@siminibo.co.kr



관계자들이 배수펌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구미시, '로컬푸드 페스타' 사전판매 돌입

서울광장서 오는 9월9~10일 개최 '영호진미' 쌀등 총 60여종 선보여 온라인 판매도... 최대 30% 저렴

경북 구미시가 오는 9월9일부터 1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을 사전판매에 나선다. 이번 사전판매는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들이

구미의 우수 농특산물을 미리 만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판매는 1차(29일~7월31일)와 2차(8월1~31일)로 나눠 진행된다. 판매 품목은 60여종이다. 도축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한 '구미항우', 2025년 전국 쌀도농협 쌀 대표브랜드 수상기 우수(전국 7위)을 평가하고 2026년 경북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영호진미', 우리밀 100%만 만든 '구미밀가루'를 비롯해 지역 농

산물과 GPO 제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모든 상품은 'Made in GUMI' 브랜드로 지역 농가와 식품업체가 직접 생산한 먹거리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

물에는 판매 방식도 확대했다. 기존 전파 주문에 더해 구미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미팜'에서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주문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미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는 9월9일부터 1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구미항우와 쌀, 딸물 등 계절 농산물과 GPO를 포함한 60여종의 농특산물을 특별 할인 판매하며, 시·시·체일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 운영해 서울 도심에서 구미의 맛과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미=박병승 기자 pbs@siminibo.co.kr

적조·고수온피해 최소화 온힘 전남도, 원도 해상서 모의훈련

전남도는 지난 26일 원도군 신지민 순국 해상에서 여름철 적조·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적조 발생 초기에는 신속한 예찰과 상황전파, 현장 초동방파제 피해 최소화 등의 핵심인 관측·상향 전파부터 지휘선 중심의 현장 방파제까지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에는 전남도, 원도군, 도 해양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서부어류양식수원 6개 기관과 지역 어업인들이 참여했으며, 지도선, 정화선, 해경정, 기술지도선 등 선박 5척과 어선 20척, 드론, 광포 살포기 등이 동원됐다. 또한 적조와 고수온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두리양식장의 역학산소 공급기 가동과 차광막 설치 등 양식장 도 피해 예방 조치도 점검했다.

도는 지난해 적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우려 어가에 대한 조치 정보 제공과 긴급 방류 광포 등 초동 대응을 강화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부=황승순 기자 whng04@siminibo.co.kr

경관보전직불금 20억 지급 진도군, 총 1165농가 혜택

전남 진도군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경관보전직불제'를 아홉달에 조성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 교류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관 작품 재배를 통해 계절별 아홉달에 농촌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판매도 등에서 2년째 개최된 '보배실 축제'와 연계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진도=황승순 기자 whng04@siminibo.co.kr

군의 대표적인 경관 작품들은 유채, 해리베리채, 자운영 등이 으며, 이들 작품은 녹비 작물로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지역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관 작품 재배를 통해 계절별 아홉달에 농촌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판매도 등에서 2년째 개최된 '보배실 축제'와 연계해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

진도=황승순 기자 whng04@siminibo.co.kr

예산군, 고립위기가구 '더블체크' 발굴

팀장급 관리자가 2차점검 상당물질 높이고 신속조치

충남 예산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하기 위해 '더블체크(더블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립·은둔·은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 주민복지과와 읍·면 맞춤형복지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중복확인(더블체크) 시스템 운영 방안과 고립·은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중복확인(더블체크) 시스템은 경제, 돌봄, 신체, 정신건강, 주거, 안전 등 11개 육구 영역 가운데 주민의 생애와 안전에 직결되는 항목을 필수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팀장급 관리자가 누락 여부와 위험도 판단의 적절성,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필요 여부 등을 한

영암군, 위기가구 발굴등 '전남도 1위'

정무합동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재정인센티브 3800만원 확보

전남 영암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정부합동평가(2025년 실적)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8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가 위업사수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경제·문화·복지·환경·안전 등 행정 전반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산발방치 성과 달성도 ▲지방도 교통안전 관리체계

번 더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군은 현장의 상담 품질을 높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고독사 위험군과 18세부터 45세까지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마트와 편의점, 방한가게,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과 봉사단체 등 여려 생필품과 민방산, 명절 음식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하는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예산=김희정 기자 kjs@siminibo.co.kr

간추린 뉴스

해남군, 전남광주대전환 전략에 핵심현안 반영 건의

명현관 전남 해남군은 지난 26일 나주 빛가람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해남군 미래발전용 견인할 핵심 현안사업과 분야별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재생에너지저장도시설 설치도 조성과 설치도 투자촉진을 위한 연계 도로망 조기 구축 등 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사업 2건을 비롯해 기획조정위원회별 검토가 필요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명 군수는 재생에너지저장도시설 설치도가 전남·광주 통합시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거점임을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용 전력 공급과 첨단산업 유치에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가 정책 반영에 기획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남=정찬호 기자 jcs0@siminibo.co.kr

서산시,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기항 성공

충남 서산시가 충청권 최초 기항 크루즈 도시로 기록되는 세 역사를 썼다.

시는 27일 오후 7시30분 중국 천진동방크루즈 소속 비지오(VISIO)호가 중국인 관광객 1620명을 태우고 서산 대산항 국제 여객부두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국제 크루즈선이 충청권 지역에 기항하는 것은 이번 서산 대산항 입항이 최초이다. 이날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대규모 일일 환영 행사가 열렸다.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직

순천로컬푸드, 별량면 경로당 10곳에 도시락 기부

전남 순천로컬푸드가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근 지역 노인들의 건강과 식생활 향상을 위한 도시락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 먹거리 복지 실현과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남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추진됐으며, 별량면 지역내 10개 경로당 노인들에게 건강 도시락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된 도시락은 순천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한 순천로컬푸드 여미락 도시락 공장에서 직접 조리한 것으로, 균형 잡힌 영양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를 바탕으로 마련돼 지역 농업 활성화와 먹거리 부지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순천=이명숙 기자 lms@siminibo.co.kr

산청군,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

경남 산청군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방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면받은 혜택이 추정되거나 지방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장 높은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 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무주택 등 지방세 감면 대상의 경우 일일 기간 거주 유무와 자정 등 사후 의무 사항을 일일해 알려 준다.

하지만 감면 요건 유지 미이행으로 추징돼 납세자의 불편이

청양군 '주민심부름꾼' 혁신분야 장려상

농촌 일상불편해소 플랫폼 구축 스마트 수리·청소·배달등 연결

충남 청양군의 생활밀착형 혁신사업인 '주민심(心)부름꾼, 부름 민력(民力)가'가 '2026년 충남정읍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본사업 혁신분야 장려상을 수상하며 혁신성장을 이끌었다.

충남도가 보내 시·군과 공공기

관의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문가 발표사업(70%)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진행된 온라인 도민투표(30%)를 종합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주민심(心)부름꾼, 부름 민력(民力)가' 사업은 농촌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체감형 플랫폼으로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민·관 합동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생활밀착형 부름꾼으로 일상생활 유익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군의 고집에서 출발했다. 주민이 전화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수리·수선 ▲청소 ▲생필품 배달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플랫폼은 이를 연결하고, 참여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양=최복희 기자 cbg@siminibo.co.kr

아산시,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유공자 표창

충남 아산시는 최근 아산타미네트워크에서 6.25전쟁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유랑기관 관계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76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열린하늘 그 이름, 지기 없는 대한의 빛'을 주제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대상 유공자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회고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민선시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가보훈과 지역사회와 연계해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아산시립합창단의 기념공연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대안 감동의 마음으로 전했다.

또한 재향군인회 자원봉사 참여와 청소년대상 유공자 상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으며, 순천대학교와 학군단이 의원을 지원해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김갑수 아산시 부시장장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값진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아산=박병승 기자 pbs@siminibo.co.kr